

현 불 뉴 스

태고종 총무원장 19일 취임

태고종 제18대 총무원장 안국스님 취임식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홍은동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개최된다.

영산재보존회 어산종장스님들이 재현하여 전통진산의식으로 진행될 이번 취임식에는 종정 보성스님 안덕암스님 등을 비롯한 종단원로수님과 종단산하 각급기관장 각 시도교구총무원 사암주지 등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봉선사 주지에 밀운스님

봉선사는 지난 7일 경내 청풍루에서 임시교구총회 및 산중총회를 열고 단속회로 후보를 추천한 밀운스님을 4년 임기의 새주지로 추천했다.

밀운스님은 54년 대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제5~9대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부위원장,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다.

14교구 신도회장 류진수씨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는 지난 3일 경내 보제루에서 교구 신도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구신도회장으로 범어사 신도회장 류진수씨를 선출했다.

류회장은 "부산불교가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범 돌원스님 2명 표창

조계종 호계원(원장 고산)은 출가일을 맞아 처음으로 모범돌원스님 2명에게 표창 및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번 장학금수혜자로 해스님(대구 파계사 영상암원)이 선정돼 오는 16일 시상하며 해사님 돌원에서 수확중인 스님중 한명을 선정 오는 4월 초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돌원스님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제2회 호계원 사법행정대회에서 결정되어 금년부터 매년 지급하게 된다.

승가대 김포학사 20일 기공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월주)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김포학사 기공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김포학사는 2년동안의 공사를 거쳐 오는 98년말 완공된다.

동국대 98년 입학전형 확정

동국대학교는 내신성적 반영율을 올해 8.36%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98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동국대는 내년도 입시부터 국어, 국문, 수화 등 학생생활기록부의 전과목을 5개 과목군으로 분류, 이중 수험생이 선택한 2개 과목군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는 내신성적 반영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목모집의 경우도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10%로 상향조정했다. 논술고사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한해 실시하며, 반영비율은 총점의 5%로 결정됐다.

올 초파일봉축 이채롭다

서울 전통연등 재현 부산 아시안게임 주요행사로

조계종 봉축기획단 일정 확정

금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서 수백등, 어등, 용등을 비롯 20여 가지의 전통봉축등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5월 10일~5월 19일)가 열리는 부산에서는 불교계와 부산시가 상호지원하는 축제로 펼쳐진다.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장·총무부장은 지난 7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봉축

표어와 함께 봉축행사 일정, 행사방향, 중점사업 등을 확정, 각 교구본사에 지침을 전달했다. 봉축기획단이 마련한 봉축행사 지침에 따르면 봉축행사는 오는 4월 25일 애기봉 OP점등식을 시작으로 서울 시청앞 점등식(5월 2일), 봉축전야제(5월 9일), 연등축제(5월 11일 등대문~조계사), 봉축법요식(5월14일 조계사) 등 20일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봉축기획단은 또 △봉축등 다양화 △우리웃 입기운동(개량·전통한복) △의국인 참여 확대 △봉축문화의 대중화 △지방봉축 위 추동 △시각상징물 보급 등 10개항의 중점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봉축기획단은 금년 봉축행사를 전통등 재현과 우리웃 입기운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오는 어등, 거북등, 팔모 등, 용등을 비롯 전통봉축등 40가지에 대해 고증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가지를 연등축제에서 선

보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도 지난 2월 27일 3차 4·8 봉축행사준비모임을 갖고 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결성했다. 정각스님(부불련 부회장)을 단장으로 규정, 재정, 문화예술, 부대행사분과 등 8개분과를 구성 봉축행사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봉축기획단은 봉축문화행사과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상호 지원하는 문제를 부산시의 협의 중이다. (김종근 기자)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은 3월1일 부설 정신대전시관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나눔의집 '정신대 전시관' 3·1절 기공... 광복절에 완공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원장 해진스님)은 지난 1일 3·1절에 부설 정신대전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동그룹(회장 광정환)이 4억원의 건립기금을 후원한 정신대전시관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건립될 예정이다. (관련인터뷰 4면) 정신대전시관은 2개동 1백평 규모로 실용기구의 위안소를 비롯하여 자료실 연구실 영상관을 설치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나눔의집 원장 해진스님과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인재 경기도지사 박종진 광주군수 정영훈의원 내외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복제' 반대 여론 확산 각국 종교·정치계등 지난날 25일 영국 과학자들이 양을 복제하여 미국 과학자들이 원숭이 복제에, 대만 과학자

아시아청소년불자 '한국 집결' 청교련 7월30일 제주 '국제캠프' 마련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불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사)대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오는 7월 30일 제주도 캠프장에서 '97 국제 청소년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이국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캠프를 마련한다.

청교련은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새학기부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캠프는 교계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최초의 국제캠프로서 각국 청소년불자들의 상호이해와 교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광사 망실토지 2천여평 환수 국가 상대로 승소

경기도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가 망실토지와 관련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파주시 광안면 기산리 663-2 토지 2천91평을 되찾았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1단독은 지난 2월 21일 보광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3심판에서 국가소유로 된 2천91평에 대한 소유권이 보광사에 있음을 선고했다.

보광사 망실토지 2천여평 환수

이번에 되찾은 토지는 보광사가 지난 1913년 10월 1일자로 소유한 부동산임이 확인됐다.

'복제' 반대 여론 확산 각국 종교·정치계등

영국 과학자들은 지난날 28일 이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와 도베르 프랑스 연구단장 국무장관도 지난 3일 '인간복제의 전면금지'를 촉구했다. 이어 빌 클린턴 대대통령은 인간 복제 연구에 대해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복제에 성공했던 영국 울버트박사도 미국 상원에 출석해 '인간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불련 불교아카데미 24일 개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가 신학혁신으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면서 오는 24일 불교아카데미(학장 정각스님)를 개강한다. 불교아카데미는 대학·대학원·법사과정으로 나누어 각 1년씩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불교문화(홍무출판사), 지구촌의 환경과 불교의 대안(유정출판사), 정보와 사회와 신문명속의 불교적 선택(송희출판사) 등의 교리강좌와 전통수행법, 명상실수, 불교

농지법 개정운동 공동 전개

조계종, 정각회와 협조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개정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국회정각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총무원 부장스님들이 소관 상임위원 내무위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지법 개정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2항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보존,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기획실장 성광스님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광스님은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제2조 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농업관련 공공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 등 9개항의 예외조항을 두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사찰청년법회 개설 17%뿐"

월간 '법회와 설법' 설문

청소년 및 어린이 청년포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 대상의 법회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원은 지난 1, 2월 (법회와 설법) 독자 가운데 2천8백50개 사찰을 무작위추출해 우편과 전화 설문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사찰의 법회개설 현황을 묻는 질문은 전화조사로 실시했으며, 54개 사찰이 전화설문에 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법회는 대부분의 사찰에서(98.1%) 병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중고등학생, 33.3%) 및 어린이(29.0%) 청년법회(16.7%)는 대상사찰의 1/3에도 못미치는 곳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법회를 병행하는 사찰(포교당)은 3.7%에 머물렀다.

응답사찰이 소수에 머물러 이같은 설문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청년층 이하의 법회현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포교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안석법사(청소년법보 발행인)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5백91곳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파라미터 부산지부

(사)파라미터 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사업계획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개원 △수화교실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캠페인 △수련활동 및 동아리 활동 전개 등이다.

마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부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이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 같이 한 찰나에 전당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천체가 함께번에 듣는다. (한양유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부처님오신날 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功德,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서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책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뒷장에 법보시책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수록내용

- 제1부 봉축법요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續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현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한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려다
민개의 등 하나의 등
은 거래의 잔잔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우우수꽃 피는 불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온라인 번호
농협은행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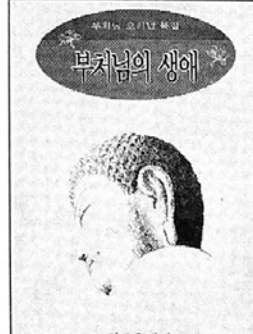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功德,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